

2010학년도 고3 국어 독서 문제지

1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모든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들은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려 하며, 시장은 이를 포착하여 알맞은 상품을 제공한다. 생명보험, 암보험 등의 각종 보험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 상품만으로 개인들이 위험에 완전히 대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들은 자신의 소득을 현재의 욕구를 위한 소비와 미래의 욕구를 위한 저축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욕구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과대평가하는 본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행운의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불합리한 존재이다. 그래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욕구를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버리는 개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대비책이 없어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 제도가 사회보험이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본인의 총액소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소득자에게는 사회보험이 민간 보험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또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료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처럼 사회보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고 저소득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고용보험에 적용해 보면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보험 상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위험이 암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은 외환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업이 증가할수록 나의 실업 확률도 커지는 상호 의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들은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역시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그 장치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민간 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성립된다.
- ② 사회보험은 국민들에게 균일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보험이다.
- ③ 사람들이 불행의 확률을 과소평가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 ④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노후생활자금 부족,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2. 위 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른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10년 동안 다니던 S씨의 회사도 역시 부도가 났다.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되어 과도한 육체적 노동에 시달리던 S씨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몸이 완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S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

- ① S씨의 실직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S씨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사회보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③ S씨와 같은 실직자를 위해서 민간 보험회사는 고용보험상품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
- ④ S씨의 실업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존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S씨가 병원 치료 이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뉴스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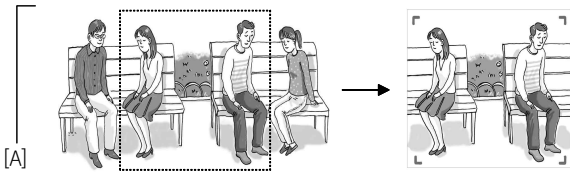
<보 기>

국민연금 상습채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당 △△△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고액·상습 채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액·상습 채납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채납 금액이 사업장의 경우 1억 원, 지역 가입자는 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 뉴스 -

- ① <보기>의 법이 적용될 대상자는 저소득자들은 아니군.
- ② 국가가 채납자들에게 가입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 하는군.
- ③ 국가가 민간 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자를 사회보험으로 유도하고 있군.
- ④ <보기>의 상습 채납자는 사회보험 제도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셈이군.
- ⑤ <보기>의 상습 채납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부족하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사진은 회화처럼 화가가 붓을 들고 종이를 메워 나가거나, 조각처럼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깎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카메라를 포함한 기계적 장치와 사진가의 선택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이 찰나의 순간에 기록된 이미지에는 사진을 사진답게 만드는 사진만의 특성이 담겨 있다. 사진은 어느 화가의 작품보다도 높은 해상력을 가지며, 어떤 장르의 예술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실적으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에서 사진이 과연 예술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제작 과정에서 기계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과 작가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예술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 그림을 보자.



이 그림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카메라는 렌즈 앞에 존재하는 것만을 프레임 안에 담기 때문에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사진 이미지는 세상의 이미지들 중에서 사진가의 눈을 통하여 선택된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사진가의 눈이 중요하다. 카메라는 앞에 있는 대상의 의미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가가 대상을 알지 못하면 볼 수도 찍을 수도 없다. 대상을 선정하여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가는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진가에게 필요한 첫 번째 눈 ㉠ '관찰의 눈'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가의 눈에 비친 그 존재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사진가는 변화하는 대상의 존재감 혹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사진을 통하여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진가가 갖출 두 번째 눈 ㉡ '존재의 눈'이다.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눈은 ㉢ '시간의 눈'이다. 사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사진은 카메라의 작동에 따라 물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순간적으로 기록된다. 이 순간성이 이 사진의 첫 번째 시간인 물리적인 시간이다. 그러나 기록되는 순간, 대상은 흐르는 시간에서 튀어나와 현재가 되고 영원성을 지닌다. 사진가가 선택한 결정적 순간이 곧 정신적 순간이고, 이 순간을 선택하는 능력이 바로 '시간의 눈'이다.

사진가가 갖추어야 할 네 번째 눈은 ㉣ '소통의 눈'이다. 사진은 시각언어이다. 사진은 현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낸다. 사물을 찍은 사진은 대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상황을 재현한다. 대상이 무엇인지 곧바로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진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좋은 눈을 가진 사진가는 사진을 매개로 한 소통을 쉽게 이끌어 내며 사진의 사실감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4.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좋은 사진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진기이다.
- ② 사진의 이미지 제작 방식은 회화의 방식을 본 뜬 것이다.
- ③ 사진은 순간의 기록이므로 시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 ④ 사진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사진은 사진가의 눈에 비친 세상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5. 위 [A]를 바탕으로 사진의 성격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필름은 악보이고, 인화는 연주이다. - E. 에덤스
- ② 사진은 모든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 P. 퍼키스
- ③ 사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포즈이다. - R. 바르트
- ④ 의미는 없다. 오로지 사물만이 존재할 뿐이다. - W. C. 윌리엄스
- ⑤ 내일의 문맹자는 사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 M. 레이

6. <보기 2>는 위 글의 ㉠~㉣의 관점에 맞춰 <보기 1>을 평가한 것이다. 관점과 평가 내용의 연결이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1>

- 권용호, 「삼대독자」 -

<보기 2>

관점	평가 내용	
㉠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좋은 사진이다.	가
㉡	할머니의 손이 손자의 몸에 닿는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이다.	나
㉢	할머니와 손자를 선택하여 흐르는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잘 보여 주는 사진이다.	다
㉣	할머니가 손자를 쓰다듬는 모습에서 따뜻한 감정을 전해주는 사진이다.	라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 ④ 나, 다 ⑤ 다, 라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현재 의학계에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는 노화와 암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DNA의 양끝 부분인 텔로미어를 지목했고,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의 기능을 응용하면 노화와 암에 대한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텔로미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DNA의 구조와 복제 과정을 알아야 한다. DNA는 긴 사슬의 형태로 이어져 있는 핵산들의 가닥 2개가 나선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핵산들에는 각각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 같은 염기가 하나씩 들어 있다. 한쪽 가닥의 아데닌이 있는 핵산은 다른 가닥의 티민이 있는 핵산과, 구아닌이 있는 핵산은 시토신이 있는 핵산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들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다.

DNA가 복제될 때는 나선 구조의 한쪽 끝이 열리면서 두 가닥이 서로 벌어진다. DNA를 합성하는 효소들은 벌어진 두 가닥을 지나가면서 배열된 염기 순서에 맞춰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핵산으로 새로운 DNA 사슬을 짠다. 문제는 DNA 사슬을 복제할 때 끝부분의 핵산이 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제 효소는 복제 대상인 핵산을 지나서 다음 핵산에 도달할 때 지나온 핵산을 복제한다. 따라서 끝에 있는 핵산은 다음 핵산이 없으므로 효소가 지나갈 수 없고, 따라서 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복제가 될 때마다 DNA 사슬 끝부분의 핵산이 사라지고, 사라지는 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들은 손실된다.

DNA는 진화를 거치면서 양끝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짧은 길이의 사슬을 붙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짧은 사슬이 바로 텔로미어(telomere)다. 생물은 각 종마다 텔로미어의 염기서열과 길이가 서로 다르다. 사람 염색체에 있는 텔로미어는 염기서열 TAGGG가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텔로미어가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사슬 부분에 덧붙여 있으면 복제 효소가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텔로미어도 세포분열(DNA 복제)이 반복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해도 마지막 핵산이 복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세포분열의 횟수는 조직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그 횟수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텔로미어가 어느 정도의 길이(노화점) 이하로 짧아지면 노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 세포가 죽는다.

하지만 모든 세포에서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암 세포의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즉 분열 횟수가 증가해도 노화 현상이 생기지 않고, 무제한으로 증식한다. 이런 현상은 텔로미어를 만드는 효소인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텔로머라아제는 텔로미어를 합성한 뒤 DNA 끝에 붙여서 텔로미어 전체의 길이를 늘린다. 이 효소는 모든 세포에 있지만, 정상인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 세포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난자를 만드는 전구세포와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 같은, 세포분열이 활발해야 하는 일부 세포에서만 활성화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텔로머라아제의 기능 조절 방법을 밝혀,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하거나 짧아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는 암 치료와, 후자는 노화 방지와 관련이 있다. 암세포 정복과 장수(長壽)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텔로미어란 무엇인가
 - DNA 구조의 규명을 중심으로
- ② DNA 관련 질병 치료의 신기원
 - 텔로미어의 효율적 생성 기술을 중심으로
- ③ 노화와 암 치료의 열쇠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④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 ⑤ 텔로미어는 DNA의 수호자
 - 유전 정보 보존을 위한 방법 마련을 중심으로

8. <보기>의 진술 중에서 텔로미어에 대한 것을 바르게 짚은 것은?

<보 기>

ㄱ. DNA의 일부분이다.
 ㄴ. DNA의 길이를 늘린다.
 ㄷ. 유전 정보의 손실을 예방한다.
 ㄹ. 세포분열의 횟수를 늘려 준다.
 ㅁ. 세포분열이 거듭될수록 길이가 짧아진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9. 위 글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보기>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할 때, 영화 속 상황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늙은 상태로 태어나 아기가 돼 죽음을 맞는다는 상상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검버섯이 핀 피부, 안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나쁜 시력. 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아이(벤자민 버튼)는 외모가 노인 같았다. 벤자민의 괴상한 외모에 놀란 아버지는 ‘노인 아이’를 한 양로원 앞에 버린다. 그의 나이 12살. 해가 지날수록 자신이 젊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때쯤 벤자민은 할머니를 찾으러 양로원에 온 6살 꼬마 데이지를 만난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벤자민과 데이지는 마침내 함께하게 되지만 그는 날마다 어려워지고 데이지는 늙어만 간다.

- ① ‘데이지’의 할머니는 전구세포들의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야겠다.
- ② 작가는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가 길어지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젊어진다고 설정한 것으로 보여.
- ③ 성인이 된 ‘데이지’의 일반 세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졌을 거야.
- ④ 6살 꼬마 ‘데이지’의 경우 일반 세포 속 텔로미어의 길이는 당시 ‘벤자민’의 경우보다 짧다고 봐야 해.
- ⑤ 태어난 직후의 ‘벤자민’은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점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한 것으로 보여.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유럽인들에게 쫓겨 강제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던 케냐의 마사이 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원래 살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붙였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인들 역시 신대륙에 정착하면서 유럽의 지명들을 붙였다. 그들은 왜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였을까? 그것은 '공간'을 '장소'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머릿속에서 기하학적으로 ㉠ 측정하고 재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공간은 인간이 활동하는 배경으로만 여겨지거나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각각의 공간들은 다른 공간들과 구별되는 자연적·인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 구성된 곳을 장소라고 한다. 공간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속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즉 장소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이며 독특한 것을 담고 있는 곳이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이를 해석하며, 의미를 ㉢ 부여한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이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상징적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가로수 길이 그곳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장소는 그곳의 실제적인 쓰임새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신들의 장소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힘에 ㉣ 대항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또 어떤 장소를 동경하거나 향수병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 충만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며,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곳이 바로 장소라는 것이다.

이렇게 장소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안정감을 주고 정체성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하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는 탓에 ㉥ 몰장소성(沒場所性)이 확산되고 있다. 즉 장소가 지닌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징적인 장소들을 훼손하는 현상과 규격화된 경관 만들기 현상이 그것인데 이런 몰장소화는 인간의 정체성을 흐드는 일이다. 몰장소성은 결국 뿌리를 잘라내고, 다양성을 획일성으로, 구체적 장소를 개념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마사이 족과 유럽인들이 새로운 곳에 예전의 지명을 붙인 이 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②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 ③ 새로운 곳에 대한 낯섬을 덜기 위해서이다.
- ④ 새로 정착한 곳에서 빨리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 ⑤ 자신들을 쫓아낸 이들에게 저항감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1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에는 울루루(Uluru)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단일 바위가 있다. 울루루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관광객들은 원하면 이 바위에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등반로 입구에 가면 다음과 같은 팻말들이 붙어 있다.

울루루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울루루 국립공원관리공단

당신들은 이 바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바위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루루가 보호되고 존경받기를 바라며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울루루 원주민

- ① 울루루에 가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② 울루루에 관광객들이 등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③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울루루에 도착한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④ 울루루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다친 기억이 남은 관광객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⑤ 자연 현상을 이유로 울루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는 울루루가 '장소'일 것이다.

12. <보기>에서 ㉠이 드러난 사례가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 기>

- ㉠ ○○시는 △△동을 한옥 보존 지구로 지정하였다.
- ㉡ ○○시는 간판의 모양과 규격, 디자인을 통일시켰다.
- ㉢ ○○시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시에 통합되었다.
- ㉣ ○○시는 특정 거리에 있는 옛 건물의 외관과 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3. 문맥상 ㉠~㉣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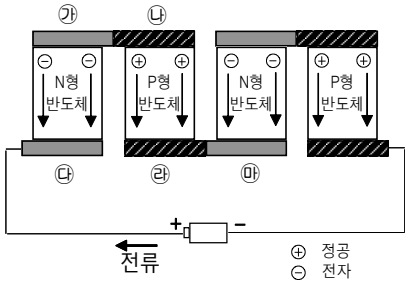
- ① ㉠: 헤아리고
- ② ㉡: 이루어진
- ③ ㉢: 붙인다
- ④ ㉣: 맞서는
- ⑤ ㉣: 가득찬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3월

19세기 중반 인쇄공인 해리슨은 활자를 세척하던 중 에테르가 증발하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데 착안하여, 이를 냉매로 한 냉장고를 개발하였다. 냉장고는 이처럼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가 되면서 주위로부터 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반대로 기체 상태의 냉매가 다시 액체로 바뀔 때는 열을 방출한다. 냉장고 뒤에 있는 파이프들은 이 열을 식히는 장치이다. 그래서 냉장고에는 냉매와 파이프, 그리고 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일반 냉장고와는 달리 이런 장치가 없는 냉장고가 인기를 ㉠ 끌고 있다. 대신 이 냉장고에는 ‘열전반도체’가 있다.

열전반도체는 전자(음전하)가 많은 N형 반도체와 정공(양전하)이 많은 P형 반도체를 붙여 만든 것이다. 열전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전원의 양극(+)으로,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은 음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전자나 정공이 이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합된 부분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다른 접합 부분에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 한쪽 접합부는 차갑고, 다른 한쪽 접합부는 뜨겁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냉동을 열전 냉동이라 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한 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두 금속의 접합부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되는 ‘펠티에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옆의 그림에서처럼 열전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N형 반도체의 전자는 ㉡ 부근에서 ㉣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인 전원의 양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은 ㉣ 부근에서 ㉡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공은 전원의 음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부 ㉡와 ㉣는 열을 빼앗겨 차가워 되는 반면에, 다른 접합부인 ㉡와 ㉣는 뜨겁게 된다.



한편 온도차를 이용하면 열전반도체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열전반도체의 한쪽에 열을 가해 다른 쪽과 온도 차를 만들면 저온부에 있는 전자 및 정공은 저온부에 있는 것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전자와 정공은 온도가 낮은 저온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처럼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전류를 얻는 발전을 열전 발전이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는 온도차와 비례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한 후 접합부에 가열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제벡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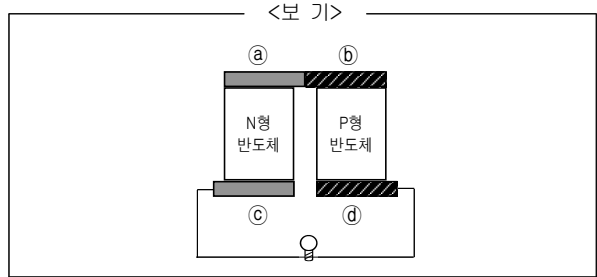
펠티에 효과나 제벡 효과를 열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열전 현상은 1800년대에 발견되었으나 효율이 낮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전반도체의 개발로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열전반도체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온도의 유지나 조절을 정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열전반도체를 이용한 시스템은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품이 적어 작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일반 냉장고에는 냉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②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 ③ 펠티에 효과나 제벡 효과를 열전현상이라고 한다.
- ④ 열전 냉동은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냉동하는 방법이다.
- ⑤ 열전현상은 열전반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열전 발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c와 d에 열을 가하면 전류는 ‘c → a → b → d’로 흐른다.
- ② b에 열을 가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정공이 d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 ③ a·b의 온도와 c·d의 온도의 차가 클수록 발생하는 전류도 커진다.
- ④ a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c 부근에 있는 전자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 ⑤ d에 열을 가하면 그 부근에 있는 P형 반도체의 정공이 b 부근에 있는 정공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

16. ‘펠티에 효과’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약보온기
- ②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작게 만든 휴대용 냉장고
- ③ 냉수와 온수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냉온 정수기
- ④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자동차 시트
- ⑤ 열을 전류로 바꾸어 온도를 표시해 주는 전자 온도계

17.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흥성은 자동차를 끌고 고향에 갔다.
- ② 경태는 긴 청바지를 질질 끌고 다녔다.
- ③ 명규는 상길이를 끌고 식당에 들어갔다.
- ④ 승현이는 일을 끝내지 않고 미적미적 끌었다.
- ⑤ 덕주는 잘생긴 외모 때문에 남들의 눈길을 끌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성(誠)’은 하늘의 도리이며, 인간은 하늘의 도리인 성실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유학에서 제시한 ‘택선고집(擇善固執)’은 개인의 내면적 충실을 강조한 인격 수양의 한 방법으로 하늘의 도리인 ‘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 ‘택선’이란 선(善)을 택하는 것이고, ‘고집’이란 그것을 굳게 지켜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한 본성을 자각하는 인식의 단계를 의미하고, 굳게 지키는 것은 자각한 본성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의 단계를 뜻한다.

㉡ ‘신독(愼獨)’도 개인의 내면적 충실을 강조한 유학의 덕목으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이다. 대학에서 ‘이른바 뜻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니, 인간은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양에 힘을 기울여,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용에서도 ‘숨은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조심한다.’고 하여, ㉢ 개인의 수양을 강조한다. 즉, 신독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기에게 충실하여 내면적으로 실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독은 개인 윤리이면서 동시에 ‘안으로 성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회 윤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자각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개인 윤리로 ‘충서(忠恕)’가 있다. 충서란 공자의 모든 사상을 꿰뚫고 있는 도리로서, 인간 개인의 자아 확립과 이를 통한 만물일체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때, ㉣ ‘충(忠)’이란 ‘중심(中心)’이다. 주희는 충을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충실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의 확립이며,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또한, ㉤ ‘서(恕)’란 ‘여심(如心)’이다. 내 마음과 같이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하라.’고 하였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남들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지닌 상태가 ‘서’의 상태인 것이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다.

택선고집, 신독, 충서는 먼저 인간의 천부적인 도덕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론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근원을 하늘에 두고, 이 하늘의 도리인 성(誠)을 인간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은 선(善)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인간의 도리는 형식을 지키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 ③ 하늘의 도리를 본받는 것은 선을 실행하는 것이다.
- ④ 본성을 자각하는 것은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
- ⑤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본성에 충실해야 한다.

2. ㉠ ~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보 기>

최근 화합의 노사 관계를 선보인 ○○기업이 화재가 되고 있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아 어려워진 회사를 위해 임금 동결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신문 기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로’의 대화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로 : 군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자 : 자기 수양을 통해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자로 :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 : 자기 수양을 하고 나서는 남을 편안히 해 주어야 한다.
 자로 :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공자 : 자기 수양을 하고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 ① ‘자기 수양’을 위한 방법에는 ‘택선고집’이 있겠군.
- ② ‘남을 편안히 함’은 ‘충서’의 실천 상태라고 할 수 있군.
- ③ ‘군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군.
- ④ ‘공자’는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자기 수양을 통한 경건함’은 ‘신독’의 실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군.

4. ㉥와 관련하여 ‘지키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지키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준수(遵守)하다]
- ② 심판은 경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유지(維持)하다]
- ③ 군인들은 목숨을 다해 조국을 지켰다. [⇒수호(守護)하다]
- ④ 경비병들이 국경을 삼엄하게 지켰다. [⇒경계(警戒)하다]
- 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보존(保存)하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석탄은 석유에 비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가채 연수가 140년 이상 남아 있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청정 석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석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청정 석탄 기술이란, 석탄 사용 시 유해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중 ㉠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은 석탄을 가스화한 뒤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사이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IGCC는 석탄 가스화 장치, 가스 정제 장치, 가스 터빈 및 증기 터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GCC의 공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석탄 가스화 장치에서 고분자 상태의 천연 석탄을 고온·고압 상태에서 불완전 연소시켜 발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연성 기체로 변환시킨다. 원료 석탄을 분쇄한 후, 석탄을 가스화하기 위해 가스 화제(공기·산소)와 함께 석탄 가스화 장치로 공급하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하여 주성분이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연료 가스가 생산된다. 생산된 연료 가스에는 분진, 황 화합물, 산성 가스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가스 터빈을 비롯한 기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따라서 가스 정제 장치를 거쳐 이러한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화학 등의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순수 유황이 부산물로 생성된다. 정제된 연료 가스는 가스 터빈으로 유입되어 1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1차 발전 단계 이후 가스 터빈에서 발생한 열을 재활용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증기 터빈을 돌려 2차 전력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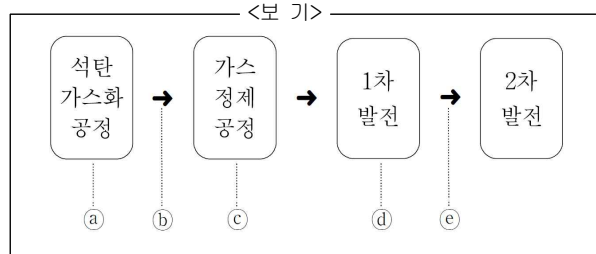
IGCC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차에 걸쳐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석탄을 직접 태워서 전력을 생산하는 ㉡미분탄 화력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IGCC는 가스화된 석탄이 연소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공정을 사용하는데, 이는 석탄을 연소한 후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미분탄 화력 발전보다 용이한 방식이다. 때문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 차세대 석탄 발전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IGCC는 설비가 복잡하여 기존 방식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만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은 적으므로 총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5.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석탄의 과거와 미래
- 새로운 기술 개발의 연구 성과와 전망
- ② 석탄 활용 방식의 변화
- 석탄에 대한 재인식과 가치의 발견
- ③ 차세대 석탄 발전의 방향 모색
- 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 ④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의 특징
- 에너지 효율성과 오염 물질 배출 감소
- ⑤ 석탄 가스화 발전 방식의 적용 실태
- 화학적 방법을 활용한 발전 방식

6. <보기>는 IGCC의 공정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원료 석탄을 가스화제와 반응시켜 연료 가스를 만든다.
- ② ㉡ : 산업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연료 가스에서 분리된다.
- ③ ㉢ : 탈황, 집진 등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연료 가스를 만든다.
- ④ ㉣ : 정제된 연료 가스를 활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 ⑤ ㉤ : 가스 터빈에서 방출되는 열로 수증기를 만든다.

7.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 항목	㉠	㉡
① 발전 연료	가스화된 석탄	천연 석탄
② 에너지 효율	높다	낮다
③ 설비 구성 요소	단순하다	복잡하다
④ 이산화탄소 제거 비율	높다	낮다
⑤ 초기 투자비용	크다	적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회화사적으로 공재 윤두서의 면모를 드높여주는 것은 서민을 소재로 한 ㉠속화(俗畵)이다. 그는 선비나 신선 아니면 미인 정도가 나오던 조선 전기 ㉡회화에서 벗어나 현실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렇게 ‘서민’이 선비나 신선의 자리를 밀어내고 화폭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것은 회화적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회화에서 화가가 그림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공재는 일하는 서민들을 직접 관찰한 후, 몸동작이나 얼굴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섬세한 붓끝으로 화폭에 담았다. 이는 몸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실주의 정신 내지는 실학 정신과 관련된다.



그림 <돌 깨는 석공>

공재의 그림 <돌 깨는 석공>에는 망치를 든 석공이 돌을 깨려는 순간, 정(釘)을 잡은 석공은 얼굴에 파편이 될까봐 몸을 뒤로 기울이며 눈을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의 배경은 채석장이 아니라 선비나 신선이 있었음직한 산수화의 배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재의 그림은 배경 처리가 여전히 비현실적이어서 조선 후기 김홍도나 신윤복의 속화만큼 박진감은 못

하다는 한계가 있다. 공재의 이러한 그림의 특징은 ‘현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현실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현실의 한 장면을 잡아내어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공재는 기존의 그림 속에 현실을 삽입시켜 전통 회화의 틀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성을 구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은 18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현실 인식을 그림 속에 반영하려 한 것이 공재의 사실주의 정신인 것이다.

그의 그림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화(自己化)’에 있다. 공재는 상당히 많은 화보(畵譜)*를 보고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화보에 담긴 그림을 무작정 그대로 베껴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기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고승화보에 있는 <주상오수(舟上午睡)>라는 그림은 한 인물이 배를 타고 강변 절벽에 솟아오른 소나무 그늘 아래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공재는 이 그림에서 소나무의 표현만을 빌어 왔을 뿐, 자신의 그림인 <송하한담도>에서는 배경을 강이 아닌 산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변용하였다. 이는 화원의 그림처럼 겉모습을 따라 그리는 기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시대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18세기 사실주의 회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 화보 : 여러 그림을 모아 만든 책

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②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대상이 지닌 특징을 다른 대상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 ④ 시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홍도 <대장간>

- ① 인물의 모습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공재의 인물 표현 방식과 유사 하군.
- ② 공재의 속화처럼 이 그림도 서민에 대한 애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겠군.
- ③ 배경을 생략하여 인물에 집중하도록 한 것은 조선 전기의 화풍을 계승한 것이군.
- ④ 전통 회화 속에 현실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군.
- ⑤ 일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은 공재의 회화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군.

10.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의도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이다.
- ② 대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 ③ 화본의 그림을 충실히 모방하여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 ④ 다양한 회화 기법을 익혀 대상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것이다.
- ⑤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부 세계의 세밀한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다.

11. ㉠ : ㉡의 의미 관계와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의 생각은 늘 기발하고 참신하다.
- ② 판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숲 속을 걷고 싶다.
- ④ 속박과 질곡 속에서 걸어온 나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⑤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4월

보통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보다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집단의 최초 의견이 모험적인 경우는 더 모험적인 방향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면 더 보수적인 경향으로 결정되는 극단화되는 현상을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 한다.

그렇다면 집단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회비교 이론’은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의 중재 자기의 주장이 상대의 주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관람한 영화가 보통 정도는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도 ‘정말 형편 없었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면, 자신도 재미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친구들보다 더 강화된 근거로 ㉢제시하여 집단으로부터 지지받는 입장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단의 의견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둘째, ‘설득주장 이론’은 집단 토의가 진행되면 새로운 정보나 의견을 접하게 되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에 구성원들이 솔깃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집단 의견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그럴듯한 주장이 제시되면 극단의 의견이 더 설득적이라 생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정이 양극의 하나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정체성 이론’은 집단극화를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사회 정체성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에 따라 내집단에서 생긴 의견 차이는 극소화되고, 집단의 규범에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다. 즉, 내집단 구성원 간의 의견차는 극소화되는 반면 외집단과 내집단의 차이는 극대화되어 시간이 갈수록 내집단의 의견은 다른 집단의 의견과 차별화되고 외집단과는 다른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 정치적 경향이 달랐던 두 정당이 시간이 지날수록 화합하지 못하고 견해차가 더 ㉤심화되는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집단극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대안의 고려나 다양한 사고 없이 집단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 과정을 ‘집단 사고’라 한다. 이러한 집단 사고의 부정적 영향성은 응집력이 높은 집단, 외부로부터의 의견 수렴이나 비판이 배제된 집단, 지나치게 권위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집단,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없는 집단,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의 경우에 강화된다.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2.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집단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더욱 극단화될 수 있다.
- ② 사람들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 ③ 사회 정체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합리적이다.
- ④ 집단의 의견과 일치하는 주장은 반대 의견보다 더 설득적이다.
- ⑤ 집단극화는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1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반응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소음 문제 때문에 평소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아파트의 부녀회가 테니스장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였다.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이용했던 지역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했고 두 집단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부녀회에는 사용 시간의 변경이나 인원수 제한 등의 해결 방법을 찾자는 소수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테니스장을 없애자는 다수의 견해로 주장이 모아졌다.

- ① 소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의견이 극단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겠군.
- ② 다른 집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생겼겠군.
- ③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의견에 동의하는 현상이 생겼겠군.
- ④ 테니스장의 피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접한 구성원이 많아 질수록 극단적 의견이 우세했겠군.
- ⑤ 시간이 지날수록 부녀회 내집단의 의견은 강화되나, 외집단과 의견해 차이는 더욱 커졌겠군.

14. <보기>는 [A]의 ‘집단 사고’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한 결과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회의 주제 :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가>집단				<나>집단			
회의 전		회의 후		회의 전		회의 후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1	9	18	2	13	7	9	11

- ① <가>집단은 의사 결정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② <가>집단은 의견을 일치시켜 집단 구성원의 응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③ <나>집단은 집단의 의견 차이를 극소화할 집단 규범을 정할 필요가 있다.
- ④ <나>집단은 <가>집단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 ⑤ <가>와 <나>집단은 모두 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위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15.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치우치는
- ② ㉡ : 일어나는
- ③ ㉢ : 들어
- ④ ㉣ : 바뀐다
- ⑤ ㉤ : 늘어나는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4월

사람처럼 복잡한 생물도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체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발전하며, 수정란에서 출발하여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을 '발생'이라 한다.

정자와 난자가 융합된 수정란의 형성 과정에서 난자는 모체가 된다. 난자는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 반구는 양분 분자들이 농축된 난황이 있어 주로 저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동물 반구는 세포의 소기관들이 많이 분포해 주로 대사 활동을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양서류의 경우에는 식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없고, 동물 반구의 피질에는 색소가 많으며, 내부 세포질에는 색소가 적게 분포되어 있어 수정란의 발생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정자가 동물 반구로 진입해 융합되면, 색소들이 정자 진입지점 주변으로 모여 검은 점을 이룬다. 이 때, 동물 반구의 피질이 진입지점 방향으로 약 30°정도 회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수정란 안쪽의 세포질은 피질과 함께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자 진입 지점 반대쪽에 있는 동물 반구 경계 부위의 세포질 부위가 노출된다. 이 부분이 회색의 초승달 모양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색신월환'이라고 한다.

[A] 1920년대 독일의 생물학자 슈페만은 도롱뇽의 알을 가지고 발생을 연구하였다. 그는 수정란 하나는 회색신월환이 양쪽으로 나뉘도록 묶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한쪽에만 있도록 묶었다. 그 결과 회색신월환이 둘로 나뉘어 포함된 수정란의 경우는 발생의 단계가 각각 진행되어 두 세포 모두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보여주었으나, 나머지 회색신월환이 없이 묶인 것은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실험 결과는 회색신월환에 정상적인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포질이 재배열하면서 만들어진 회색신월환에는 포배기*의 다음 단계가 시작하도록 세포 이동을 지시하는 요소가 있다. 이 회색신월환의 요소가 세포들에 이동 신호를 보내면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의 배엽층이 만들어지는 발생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배엽은 소화기와 호흡기 등이 되고, 외배엽은 신경계와 피부 등이 된다. 또 중배엽은 혈관이나 뼈 등의 신체기관이 된다. 회색신월환은 단세포인 수정란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체기관의 조직으로 분화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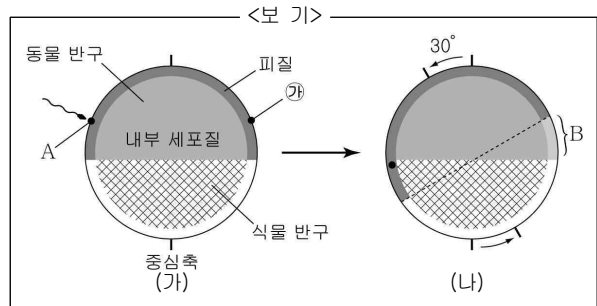
*포배기 : 수정란이 세포분열한 후 표면에 층을 만들어 배열하고 가운데 부분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기

16. 위 글로 미루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ㄴ. 각 배엽층의 세포는 어떤 기관으로 분화되는가?
 ㄷ. 세포분열 과정에서 난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ㄹ. 양서류의 난자에 색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7. <보기>는 ㉠이 형성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위 글을 토대로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자 진입지점이 A에서 ㉠로 바뀌면, 난자 피질의 회전 방향도 ㉠쪽으로 바뀔 것이다.
 ② A는 동물 반구의 피질 부분으로 배엽층을 형성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곳이다.
 ③ B는 (가)의 수정 단계 이후 회색신월환이 형성된 부분이다.
 ④ B는 피질이 회전하여 동물 반구의 세포질 색소가 노출된 부분이다.
 ⑤ (가)에서 (나)로 진행되는 동안 식물 반구와 동물 반구 피질의 색소 분포가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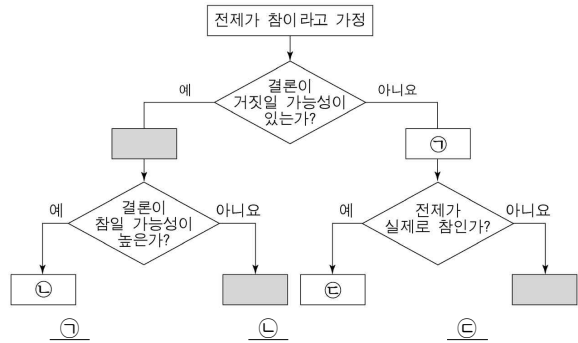
18. [A]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상적인 발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② 세포 소기관의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어느 곳인가?
 ③ 발생에 필요한 세포질 요소가 수정란의 어느 부위에 분포하는가?
 ④ 정상적인 수정란에서 동물반구와 식물반구의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⑤ 수정란이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의 세포층을 형성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추론 1]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 [추론 2]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혹시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 추론은 '건전하다'고 정의한다. 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하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1. 위 글에 따라 추론을 구분하는 과정을 도식화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 |
|--------------|------------|------------|
| ㉠ 타당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건전한 추론 |
| ㉡ 건전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타당한 추론 |
| ㉢ 타당한 추론 | 건전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 건전한 추론 | 타당한 추론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 ㉤ 개연성이 높은 추론 | 타당한 추론 | 건전한 추론 |

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남자 : 이 책에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크다고 쓰여 있어.
 여자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우유를 많이 마셔.
 남자 : 맞아. 농구 선수들은 다들 키가 엄청나게 크잖아. 틀림없이 우유를 많이 마셨을 거야.
 여자 : 너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아. 우유를 많이 마셔서 키가 큰 사람보다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많아.

- ① 남자의 추론은 '추론 1'과 달리 전제가 실제로 참이므로 건전하다.
- ②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추론 2'와 달리 개연성이 낮다.
- ③ 여자는 남자의 추론에서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 ④ 남자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우유를 안 마시고도 키 큰 사람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추론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론 2'와 같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 폭풍이 불어대는 ㉠ 불모지일까?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 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위도와 중위도에 분포한다.

저위도의 사막은 북회귀선이나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지구의 ㉡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기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북회귀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다.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 습윤한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양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되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 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에서 열대 습윤 환경에서 ㉣ 서식하던 신제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윤한 지역이었으며,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

[A] 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古地磁氣)*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귀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신제3기 : 신생대 제3기 후반.
* 고지자기 : 과거 지구 자기장.

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②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온대 사막이다.
- ③ 시에라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④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다.
- 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4. [A]에서 사용된 ㉠의 검증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한다.
 ㄴ.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ㄷ. 경쟁 가설보다 설명력이 있는지 비교한다.
 ㄹ.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5.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의 과정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인은?

- ① 대기 대순환 ② 대륙의 크기 ③ 산맥의 높이
- ④ 해수의 온도 ⑤ 해양과의 거리

6. ㉠~㉥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 ② ㉡ : 천체의 표면을 둘러싼 기체.
- ③ ㉢ : 습기가 많은 느낌이 있음.
- ④ ㉣ : 길러서 번식하게 함.
- ⑤ ㉥ : 솟아올라 높아짐.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6월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날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재에 더 강함으로써 **㉠ 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7.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재현하려 했다.
- ②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을 나타내려 했다.
- ③ 고전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어 스타인을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내려 했다.
- ④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정확히 묘사하려 했다.
- ⑤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인의 모습을 재현하려 했다.

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보기> —

(가)	(나)	(다)
		
모네(1891) <늦여름 아침의 날가리>	세잔(1899) <사과와 오렌지>	피카소(1907) <아비뇰의 아가씨들>

- 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 ③ (가)와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④ (가)와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

9. **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성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 ③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성은 얻을 수 없다.
- ④ 대상의 숨어 있는 실재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기관이 필요하다.
- ⑤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을 얻기가 어렵다.

10. ㉠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목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 ②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 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 체계는 발전할 수 있다.
- ④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 그림을 대하자마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상을 그림에서 알아본다.
- ⑤ 나무를 그린 소묘 속의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소묘 때 그림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묘로 보인다.

11.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擧得)하게
- ⑤ 획득(獲得)하게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6월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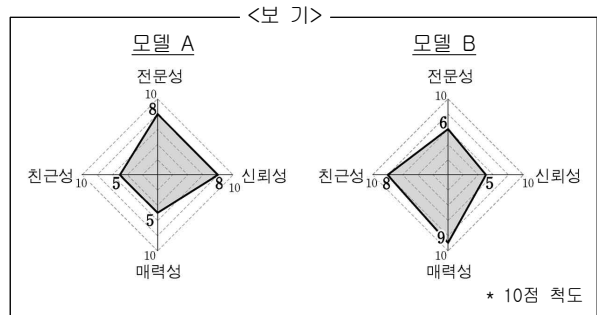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외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13. 위 글의 글쓴이의 입장에 따라 <보기>의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효과를 예상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델 A가 특정 카메라 광고에 계속해서 등장할 때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모델 A가 자동차, 보석 광고 등에 중복 등장할 때 기대했던 만큼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③ 모델 B가 치약 광고와 여행 광고에 등장할 때 두 광고 모두에서 긍정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④ 초콜릿 광고의 경우 모델 A보다 모델 B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⑤ 공기 청정기 광고의 경우 모델 B보다 모델 A가 등장할 때 더 큰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 위 글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고하는 상품의 특성에 적합해야 광고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② 유명인을 등장시킨 광고의 효과가 기대 이하여서 광고 횟수를 지속적으로 늘렸으나 광고 효과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 ③ 유명인 광고 모델이 현실에서의 비리나 추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광고하는 상품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다.
- ④ 광고를 많이 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 유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동시에 할 경우 광고의 효과가 커졌다는 사례가 있다.
- ⑤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유명인이 등장하는 광고를 자주 하면,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광고 횟수가 적어도 효과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5.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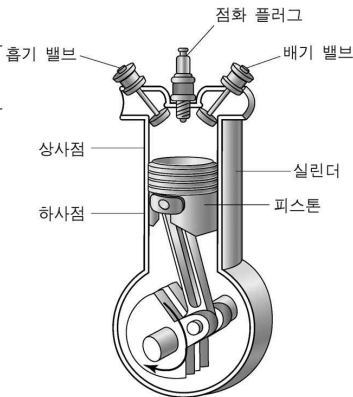
[1점]

- ① 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 ②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나온다.
- ③ 하루 종일 찾던 지갑이 세탁물 속에서 나왔다.
- ④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빨래를 못 했다.
- ⑤ 며칠 전 씨를 뿌린 곳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6월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연료량 대비 운행 거리의 비율인 연비로 나타내며,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자동차의 연비는 엔진의 동력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엔진의 동력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 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생산된다. 흡기 행정에서는 흡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을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실린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유입되는데, 흡입되는 공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공기와 함께 연료를 섞어 넣는다. 압축 행정에서는 ㉠ 실린더를 밀폐 시키고 피스톤을 다시 상사점으로 밀어 공기와 연료의 혼합 기체를 압축한다. 폭발 행정에서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이를 즈음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일으켜 압축된 혼합 기체를 연소시킨다. 압축된 혼합 기체가 폭발적으로 연소되면서 실린더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외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밀리면서 동력이 발생한다. 배기 행정에서는 배기 밸브가 열리고 남아 있는 압력에 의해 연소 가스가 외부로 급격히 빠져나간다. 피스톤이 다시 상사점으로 움직이면 흡기 때와는 반대로 부피가 줄면서 대기압보다 내부 압력이 높아지므로 잔류 가스가 모두 배출된다.



이러한 엔진의 동력 발생 주기에서 흡입되는 공기와 분사되는 연료의 혼합비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 자동차의 연비가 크게 달라진다. 일정 질량의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한편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의 이동으로 흡입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므로, 공기의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주기 동안 완전 연소 가능한 연료량의 최대치는 일정하다. 즉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와 연료의 적절한 혼합비는 이론적으로는 일정하다. 혼합비가 적절하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면서 유해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정 혼합비보다 혼합 기체에 포함된 연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반대로 연료의 비율이 낮아지면 공기 과잉으로 질소산화물이 늘어나고 배기가스에 산소가 잔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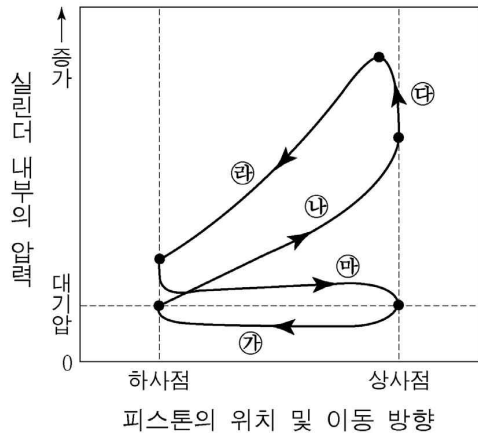
이론과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적정 혼합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대기압, 엔진의 회전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실린더에 흡입되는 공기의 질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려면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혼합비를 지속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4 행정의 동력 발생 주기를 완료하면 피스톤은 실린더를 2회 왕복한 것이 된다.
- ②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동력을 얻는다.
- ③ 엔진의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하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④ 혼합 기체의 흡입과 연소 가스의 배출은 실린더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실제 환경에서 엔진의 회전수는 혼합 기체의 적정 혼합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17. 다음 그래프는 엔진이 작동할 때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피스톤의 위치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의 ㉠에 해당하는 구간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해발 고도가 5,000 m 정도인 고원 지역에서는 대기압과 공기의 밀도가 해수면 인접 지역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해수면 인접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고가 되도록, 한 주기 동안 분사되는 연료량을 고정시킨 자동차를 고원 지역에서 운행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흡입 공기의 압력을 감지하여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① 탄화수소의 발생량이 증가한다.
- ② 엔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 ③ 배기가스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
- ④ 배기가스에서 잔류 산소가 검출된다.
- ⑤ 동일 양의 연료에서 얻는 출력이 커진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발탈은 조종자가 노출된 발에 얼굴탈을 얹고, 인형의 양팔에 줄을 묶어 조종하면서 진행하는 전통 연희이다. 발탈의 외형은 하체는 없고 상체만 있으며, 인형의 팔은 긴 한삼을 끼고 있다. 조종자는 포장막 뒤에서 비스듬하게 누워, 내민 한 발로 얼굴탈을 조종하고, 손은 대나무와 끈을 통해 발탈의 상체를 조종한다. 발탈의 인물은 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극중 대사로 보아 생선 장사로 먹고 사는 인물이다.

발탈은 어찌 보면 인형극 같기도 하고, 또한 가면극 같기도 하다. 우선 발탈이란 명칭만 보아서는 발에 탈을 씌워 논다는 점에서 가면극이지만, 탈을 조작하는 사람이 포장막 뒤에서 조종만 한다는 점에서 인형극으로 볼 수도 있다. 꼭두각시놀음과 비슷한 시기에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탈의 놀이판은 가로 130cm, 세로 1m 정도의 직육면체로 위와 뒤를 터놓고 앞과 옆을 막아놓은 'c'자 형태이다. 연희는 포장막 앞에 어릿광대와 발탈꾼이 재담을 나누며 극을 진행하는데 다른 탈놀이와 달리 내재적 성격과 같이 당시 짓눌렸던 민중들의 애환을 꾸밈없이 담고 있다. 여기에 악사의 반주, 어릿광대와 관중의 추임새 등이 총체적으로 어울리며 전개된다.

발탈의 상대인 어릿광대는 남루한 옷차림에 상투머리를 하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등장하여 발탈 오른쪽 앞에 위치한다. 이 인물은 발탈의 보조역으로 발탈과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적절히 추임새를 넣어준다. 그러면서 극의 상황을 설명하는 해설자, 극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절하는 연출자, ㉠관중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자, 재담으로 상대와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비판자의 역할 등을 두루 소화한다.

발탈의 연희는 발탈이란 상반신 탈인형과 어릿광대라는 재담꾼이 등장해서, 두 이질적 존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방식이다. 그래서 발탈은 다른 가면극이나 인형극에 비해 등장 인물의 수가 적고, 갈등 관계가 단조로우며, 춤사위가 정적이고 역동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익살스럽고 재치 있는 재담이 풍부하며, 실내에서 공연되기 때문에 연희자와 청중과의 원활한 소통에 의해 상호 교감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풍자와 해학이 풍부한 2인 재담 방식의 발탈은 이러한 연희의 특이성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 79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1. '발탈'을 소개하는 기사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 유일의 전래 인형극
- 백성들의 속마음 담아 부조리한 사회 비판
- ② 꼭두각시를 모태로 한 창작극
- 관객이 참여하는 열린 무대
- ③ 관객을 매료시킨 화려한 춤사위
- 인형극과 가면극의 성격 두루 갖춰
- ④ 익살과 재치가 넘치는 열린 무대
- 발탈과 어릿광대가 노는 특이한 전통 연희
- ⑤ 다양한 인형들의 움직임에 익살이 묻어나
- 상체 인형과 어릿광대가 만드는 전통 탈놀이

2. <보기>의 ㉠~㉣ 중,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보 기>

말뚝이: 쉬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짤따란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연주 전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깍지 회자 죽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이 낚시걸 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현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현화를 금하였다네. (긱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말뚝이: 쉬어. (춤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를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뽕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아아,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들소. 용두 해금,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뽕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긱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 위 글을 읽고 심화학습으로 '꼭두각시놀음'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발탈'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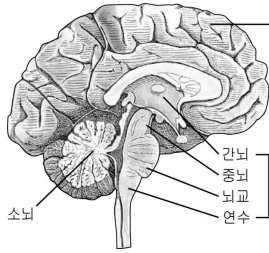
꼭두각시놀음은 고려시대부터 양반과 위정자들의 얼굴을 바가지로 만들어 당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면서 서민층이 즐겨 놀았던 민속 인형극이다. 무대는 사방에 기둥 네 개를 세우고 까만 포장막 쳐 등장하는 인형에 초점이 모아지도록 한다.

조종자는 포장막 안에 앉아 인형의 하반신을 잡고 인형들을 움직이며, 악사들은 포장 밖에 앉아 연주하면서 인형의 말을 되받아 주는 산발이 역할을 겸한다. 연희는 채록본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주인공인 박첨지의 일대기를 줄거리로 하여 대화와 몸짓, 노래, 춤사위 등을 진행하면서 등장인물 간 참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어서 연극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기준 \ 종류	발탈	꼭두각시놀음
① 무대 장치	있음	없음
② 조정 방식	누워서 인형에 줄을 매어 조정함	앉아서 인형의 상반신을 잡고 조정함
③ 발생 시기	조선시대	고려시대
④ 갈등 양상	단조로움	참여함
⑤ 연주자	어릿광대	산발이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벨기에 RTBF 방송은 1983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론 하우벤이 침대에 누워 있는 23년 동안 내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첨단 장비로 론 하우벤의 두뇌를 검사한 결과,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던 뇌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간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눌 수 있다. 대뇌는 전체 뇌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사고나 추론과 같은 복잡한 인지 능력을 담당한다. 그리고 소뇌는 대뇌 아래, 뇌간 뒤쪽에 위치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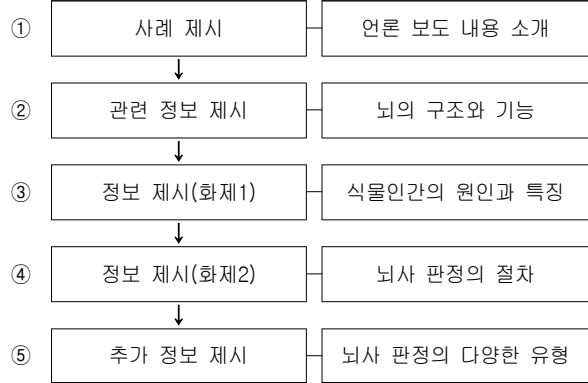
잡게 해주고, 시작된 운동의 연속적인 활동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뇌간은 간뇌, 중뇌, 뇌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 소화 기능, 심장 박동 기능을 담당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뇌는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문제로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식물인간의 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 외상이 가장 많다. 대뇌의 표층부를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운동, 감각, 의식 등의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뇌피질이 손상을 입으면 운동 기능이나 의식이 정지되고, 뇌간이 담당하는 호흡과 소화 기능, 심장 박동 기능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어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로, 운동, 감각, 사고 등 사람의 동물적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호흡, 대사, 체온 조절 등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되어 있으며 의사가 계속 돌보지 않으면 1주일밖에 견디지 못한다.

반면,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뇌사나 식물인간은 대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어도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어, 생명이 지속되는 상태지만 뇌사는 뇌 전체나,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이 정지되어 다시 회복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이러한 상태에 놓인 환자를 인공호흡기나 약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도록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개 폐와 심장의 기능도 나빠져 그 이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한편, 어떤 상태를 뇌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입장이 있다. 그 하나가 기능사와 기질사에 대한 것이다. 기능사란 뇌 순환은 유지되고 뇌 세포도 살아 있지만 뇌의 기능이 모두 정지한 상태를 말하고, 기질사는 뇌 순환이 정지되고 뇌세포도 죽기 시작했거나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 뇌 전체의 기능 정지를 뇌사(전뇌사)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뇌간 기능의 돌이킬 수 없는 소실을 뇌사(뇌간사)로 보는 입장도 있다.

4. 위 글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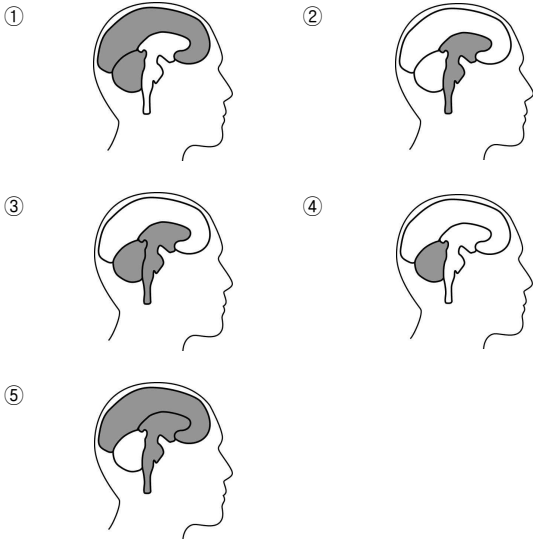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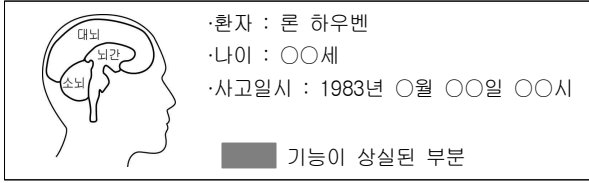
5. 위 글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술을 마시면 맨 먼저 대뇌피질이 마비되면서 사고와 판단이 느슨해진다. 그러면서 평소 대뇌피질에 억눌려 있던, 본능과 감정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동물의 뇌’라고 불리는 대뇌변연계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 그 결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 술의 양이 늘어나 알코올의 영향이 더욱 미치게 되면 몸을 비틀거리거나 일어서려고 해도 금방 쓰러지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호흡 장애와 심장 박동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 ① 알코올은 소뇌의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알코올은 대뇌변연계 기능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③ 음주로 인한 대뇌피질의 마비는 대뇌 일부의 기질사로 볼 수 있다.
- ④ 과도한 음주는 뇌간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⑤ 음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부분은 뇌의 다른 영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6. 론 하우벤의 교통사고 직후 상황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당시 의료진의 판정 근거가 됐을직한 뇌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7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정립한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선비는 사회의 지도 계층으로서 그 지위가 확립되었다. ‘선비’라는 말은 ‘사대부(士大夫)’의 신분에서 속하면 아무에게나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에게 존경의 뜻을 실어서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므로 ‘선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비는 벼슬길에 나가든 산림에 은거하든 상관없이 항상 자신을 선비로서 다듬어야 하는 임무를 지닌다. 선비는 조정에서 임금의 정치를 보좌할 때 선비다운 기개를 발휘하여, 권세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에 맞서, 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한다. 혹 벼슬하려는 뜻을 버리고 산림(山林) 속에 은거하여 ‘처사(處士)’로서 살아가더라도 유교의 도를 강론(講論)하여 밝히고 수호하는 임무를 지닌다. 그리고 선비는 자신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항상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생활의 신조로 삼아 세속적,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확인하고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선비는 이렇게 유교적 도덕 규범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들을 교화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이다.

선비의 임무가 이렇게 중대하니 선비는 선비로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비가 자신을 다듬어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식견(識見)을 깊고 바르며 확고하게 정립해 가는 것이다. 즉 선비는 독서를 통해 이치와 의리를 깨닫고 밝혀서 마음에 깊이 젖어들게 함과 동시에 이를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선비의 학문은 결코 지식의 양적 축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천의 힘, 행동의 원리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수양을 통해 그 마음을 부드러우면서도 굳세고 흔들리지 않게 확립하는 것이다. 선비는 봄바람처럼 온화한 인품과 가을 서리처럼 엄격한 신념, 즉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선비의 인품과 판단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 공부를 통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비의 자기 수련 과정으로서 학문과 수양은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평생을 지속해 가는 과업이다. 따라서 선비는 평생 동안 독서를 쉬지 않는 ‘독서인’이며, 독서를 통해 진리의 근원을 통찰하고 현실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발견해 내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7.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비의 이상과 한계
- ② 선비 의식의 역사적 배경
- ③ 선비의 임무와 수련 방법
- ④ 선비 정신의 현대적 의의
- ⑤ 선비의 역사 의식과 실천 방법

8. 위 글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비는 학문적 탐구와 육체적 수련을 병행하였다.
- ② 선비가 한번 성취한 명성은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 ③ 선비의 지도적 지위는 통치 권력의 이념과 관련이 없다.
- ④ 선비는 도덕적 수양보다 사회적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다.
- ⑤ 선비는 대중의 교화를 위해 숭선수범의 생활 태도를 실천했다.

9.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시조를 해석할 때, 적절한 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천운대 도라드러 완락재 소쇄(瀟灑)한데,
 ㉠만권(萬卷) 생애(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
 란.
 이 중에 ㉢왕래(往來) 풍류를 날러 므슴할고.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
 고인을 못 보도 녀던 길 알페 잇네.
 ㉤녀던 길 알페 잇거든 아니 녀고 어쩔고.
 - 이항, 「도산십이곡」 중에서 -

- ① ㉠을 통해 화자의 삶이 독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는 학문 연구의 즐거움이 끝이 없다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줘.
- ③ ㉢를 통해 화자가 위정자와 처사를 병행하면서도 풍류를 동경했음을 알 수 있어.
- ④ ㉣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존경받는 인물이었겠네.
- ⑤ ㉤는 이치와 의리를 깨닫고 밝히는 진리 탐구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

1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친구들끼리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다.
- ② 올해 우리 학교는 학교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 ③ 농담 한 마디가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 ④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드셨다.
- ⑤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글을 모아 학급 문집을 만들어 주셨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7월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가 고민이라면 역사학자 토머스 플러는 “오늘의 달걀보다 내일의 달걀이 더 좋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작가인 사무엘 존슨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적게 소비하라.”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어떻게 대답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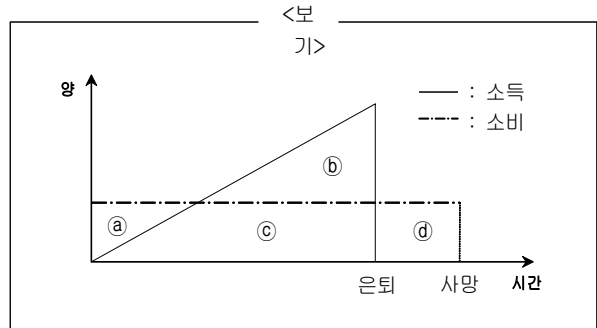
돈을 버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돈을 ㉠기반으로 한 소비와 그 소비를 통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궁극적 만족이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돈을 벌까’라는 고민은 ‘얼마나 소비할까’라는 걱정과 다르지 않다. 만약 평생 벌 수 있는 수입을 알 수 있다면, 죽는 순간에는 번 돈을 다 쓰고 남기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애초에 다 쓰지 못할 재산을 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의 ‘토머스 플러’와 ‘사무엘 존슨’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리적 소비가 된다. 즉 ‘현재와 미래에 얼마만큼 소비해야 합리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결정하려면 개인이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직장을 얻기 전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면 평균 근무 기간 및 연봉을 알 수 있고 매년 오르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소득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현재와 미래의 최적 소비량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평생 소득은 주어져 있는데 현재 많이 소비하면 미래에는 조금밖에 소비할 수 없다. 만약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할 양의 일부를 남겨 둔다면, 그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라는 추가 수입을 가져다준다. 미래에는 원금에 이자의 증가분만큼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소비를 줄이는 데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사람들은 먼 미래에 벌어질 사건보다 현재 눈앞의 사건에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건네면서 “오늘 즐까, 내일 즐까?”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대부분은 ‘오늘 달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에서 보듯이 고통도 먼저 경험하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현재를 미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을 ‘시간선호’라고 부른다. 따라서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미래를 위해 이자 수입이라는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시간선호에 따른 현재소비의 즐거움은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이자 수입과 시간선호의 효과가 ㉤상쇄된다면,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주는 각각의 만족만 생각해 최적 소비량을 결정하면 된다. 결국 평생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래 모두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평생 동안 소비를 고르게 나눠서 하는 것이 짧은 시절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적게 소비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란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1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소비할 만큼의 소득이 없는 시절에는 ㉠만큼 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 ② ㉢가 많아지면, 시간선호에 따른 현재의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③ ㉠과 ㉢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으로 이자 수익을 포함한다.
- ④ ㉠, ㉢, ㉤의 합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쓰게 될 전체 소비량에 해당한다.
- 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가 ㉠과 ㉤를 합한 것과 같아야 한다.

12. ㉡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사장은 소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 직원의 건강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
- ② 최 이장은 재작년에 좋은 가격을 받은 고추를 올해 더 많이 심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 ③ 정 과장은 5년 후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요량으로 월급을 쪼개어 주택 마련 적금을 붓고 있다.
- ④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박 부장은 신문에서 경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며 투자할 기업을 늘 살펴본다.
- ⑤ 이 과장은 결혼 10년을 맞이하여 모아둔 동전을 무료 급식소에 기탁하고 하루 동안 급식 봉사 활동을 하였다.

13.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비판적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 재해나 질병 등을 대비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 ② 미래소비의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소비를 줄이라는 것은 현재소비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거야.
- ③ 소비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심하게 변할 때도 많은데, 매일 같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 ④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 평생에 벌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하기는 어려울 거야.
- ⑤ 이자율이 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미래의 이자 수익이 시간선호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야.

1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함.
- ③ ㉣: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 ④ ㉤: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짐.
- ⑤ ㉥: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함.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17세기에 수립된 ㉠ 뉴턴의 역학 체계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취급하였는데 공간 좌표인 경, 경, 경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즉,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물리량이며 모든 우주에서 동일한 빠르기로 흐르는 실체인 것이다. 이러한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은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시간의 절대성 개념은 ㉡ 아인슈타인에 의해 근본적으로 거부되었다. 그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대성 이론을 수립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광속을 c 라 하고 물체의 속도를 v 라고 할 때 시간은 $\frac{1}{\sqrt{1-(v/c)^2}}$ 배 팽창한다. 즉, 광속의 50%의 속도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약 1.15 배 팽창하고, 광속의 99%로 달리는 물체에서는 7.09 배 정도 팽창한다. v 가 c 에 비하여 아주 작을 경우에는 **시간 팽창** 현상이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v 가 c 에 접근하면 팽창률은 급격하게 커진다.

아인슈타인에게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별개의 물리량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함께 변하는 상대적인 양이다. 따라서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지연이 생긴다.

1. '시간 팽창'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움직이는 사람의 시계 바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계 바늘보다 빨리 움직인다.
- ② 초고속 우주선을 타고 여행할 때, 지구에 정지해 있을 때보다 천천히 늙는다.
- ③ 사고로 갇혀 있는 조난자는 갇히기 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다.
- ④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평소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
- ⑤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별의 폭발 장면이 지금 지구에서 관측된다.

2. ㉡의 입장에서 ㉠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은 모든 공간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적이지 않다.
- ② 상대 시간 개념으로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 ③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이므로 우주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④ 시간과 공간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의 관련성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 ⑤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시간이 반대로 흐를 수 있으므로 시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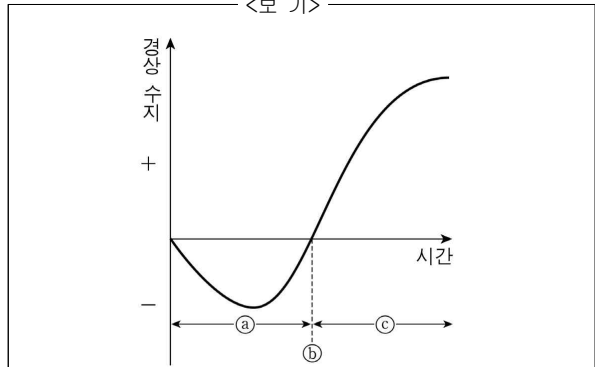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6.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11. ㉠과 ㉢을 공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겹쳐 있는 ② 들어 있는 ③ 쏠려 있는
- ④ 안겨 있는 ⑤ 얹혀 있는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9월

전통적 공리주의는 세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대표적 윤리 이론이다. 첫째, 공리주의는 행동의 윤리적 가치가 행동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이다. 행동은 전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의해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행동의 결과를 평가할 때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산출할, 계산 가능한 '행복의 양'이다. 이에 ㉠ 따르면 불행과 대비하여 행복의 양을 많이 산출할수록 선한 행동이 되며, 가장 선한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다. 셋째, 행동을 하기 전 발생할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개인의 행복을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때 오로지 그 둘에게 산출될 행복의 양들만을 고려한다. 이는 공리주의가 전형적인 공평주의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공리주의자]가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리주의가 때때로 정의의 개념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의 세 요소들을 실천하는 공리주의자인 민우가 집단 A와 집단 B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 민우는 집단 A의 한 사람이 집단 B의 한 사람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민우가 만약 진실을 증언하면 두 집단의 갈등을 더 악화시켜 유혈 사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집단 B의 무고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집단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은 더 위험하다. ㉡ 이 상황에서 전통적 공리주의자인 민우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의 배제 상황에 대한 공리주의자들의 몇 가지 대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하나는 공리주의 또한 정의의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을 증언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먼저 가정하고 과연 어느 사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는 사회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의 사회가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래서 행복을 더 많이 산출하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규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는 공리주의자들을 규칙 공리주의자라고 한다.

[A]

12. <보기>의 '갑'의 행동을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선하다고 평가할 때, 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갑'은 몸살로 집에 누워 있는 친구를 간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심각하게 다친 운전자를 목격했다. '갑'은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그를 급히 응급실로 옮겨서 다행히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갑'은 친구를 간호할 수는 없었다.

- ① '갑'은 전체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동했군.
- ② '갑'은 다친 사람을 도우면 자신만이 행복해진다고 판단했겠군.
- ③ '갑'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군.
- ④ '갑'은 몸살 환자보다 다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많은 행복을 산출한다고 판단했겠군.
- ⑤ '갑'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선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누구를 도울지를 결정했겠군.

13. ㉠에 대해 [반공리주의자]가 예상하는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할 것이다.
- ② 증언의 결과가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 ③ B 집단의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다.
- ④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킬 것이다.
- ⑤ 가해자에 관한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14. [A]의 규칙 공리주의자와 <보기>의 의무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의무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좋은 결과가 산출되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 ① 규칙 공리주의자는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어.
- ② 의무론자는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
- ③ 의무론자와 규칙 공리주의자는 모두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 ④ 의무론자는 규칙의 절대성을, 규칙 공리주의자는 정의의 배제를 강조했어.
- ⑤ 의무론자는 결과와 무관하게, 규칙 공리주의자는 결과에 의존하여 정의를 강조했어.

15. 밑줄 친 부분이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1점]

- ①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
- ② 누구라도 나를 잘 따르면 귀여워할 수밖에 없다.
- ③ 누구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 ④ 네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르면 좋은 요리사가 될 거다.
- 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맞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9월

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10^{-9}m)에서 수 마이크로미터(10^{-6}m)인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반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이다.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이다. 응답 감도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 저항값(R_s)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서 측정된 저항값(R_{air})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는 감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한편,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정상 상태로 흡착돼 있는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탈착되는 데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흡착 :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가 달라붙는 현상.
* 탈착 :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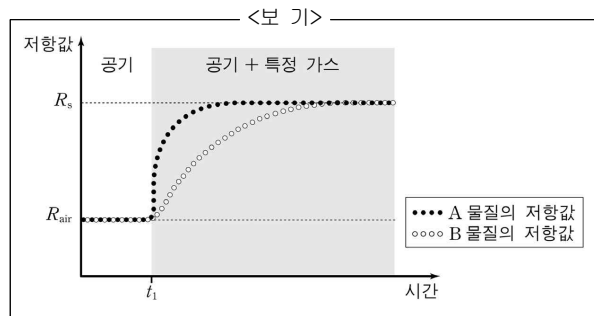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산화물 반도체 물질은 가스 흡착 시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
- ② 인간은 후각을 이용하여 유해 가스 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회색 시간이 길어야 산화물 반도체 가스 센서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늘어난다.
- ⑤ 저항형 가스 센서는 가스의 탈착 전후에 변화한 저항값으로부터 가스를 감지한다.

17.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음악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 ② 체육 시간에 안정적인 자세로 물구나무를 서서 박수를 받았다.
- ③ 모험 항공기가 처음에는 맞바람에 요동쳤으나 곧 안정되어 활강하였다.
- ④ 자세를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며 공을 던졌으나 50 m 이상 날아가지 않았다.
- ⑤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 걷은 직후 맥박을 재어 보니 항상 분당 128~130 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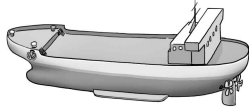
18. 산화물 반도체 물질 A와 B를 각각 이용한 두 센서를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여 <보기>와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산화 가스이다.
- ② 응답 감도는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③ 응답 시간은 A를 이용한 센서와 B를 이용한 센서가 같다.
- ④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에는 공기 중에서 A와 B의 저항값이 같다.
- ⑤ t_1 이후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는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크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배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장치는 ‘발지킬’, ‘안티롤링 탱크’, ‘핀 안정기’ 등 세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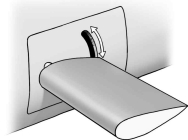


‘발지킬’은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로 균형뿐만 아니라 많은 배들이 사용하고 있다. 발지킬은 물에 잠기는 배의 측면에 붙이는 얇은 판을 가리킨다. 발지킬을 갖춘 배는 얇은 판이 배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발지킬이 있으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왼쪽에 있는 발지킬로 인해 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는 원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므로 배의 흔들림은 줄어들게 된다.

발지킬이 배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는 장치라면 ‘안티롤링 탱크’는 큰 배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치이다. 안티롤링 탱크는 커다란 U자형 관을 배 안에 설치하고 그 안에 물을 채워둠으로써 흔들림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도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U자형 관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의 기울어진 방향과 U자형 관 안의 물의 위치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물은 오른쪽에 있고,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물이 왼쪽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물의 무게가 배를 눌러줌으로써 원 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물이 이동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과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이 같은 방향에 있게 되면 오히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되는 안티롤링 탱크는 펌프를 이용하여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 맞추어 배가 흔들리는 것을 줄이고 있다.



발지킬과 안티롤링 탱크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장치라면 최근에 개발된 장치는 ‘핀 안정기’이다. 배 양쪽에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달려있는 장치가 핀 안정기이다. 물체가 움직일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 부르는데 핀 안정기는 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한다.



그림에서 보듯 핀 안정기의 앞쪽은 배에 고정되어 있지만 뒤쪽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배의 앞쪽에서 바라볼 때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 핀 안정기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쪽 핀 안정기의 뒤쪽은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왼쪽 핀 안정기 아래쪽의 물의 흐름은 느려지고 위쪽은 빨라지면서 핀 안정기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보다 높아진다. 이 압력차로 인해 왼쪽 핀 안정기에서는 위로 양력이 작용하고, 반대로 오른쪽 핀 안정기에서는 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발지킬은 양력을, 핀 안정기는 마찰 저항을 이용한다.
- ② 발지킬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흔들림 방지 장치이다.
- ③ 안티롤링 탱크는 규모가 큰 배들이 사용하는 장치이다.
- ④ 흔들림 방지 장치 중에 핀 안정기는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 ⑤ 안티롤링 탱크는 U자형 관 안의 물이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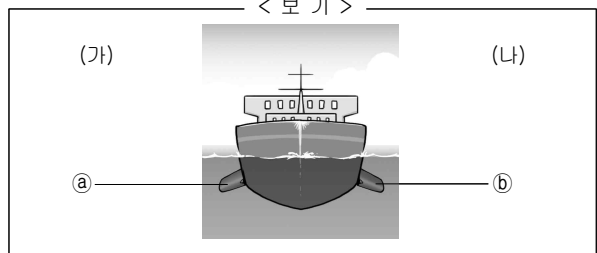
2. 위 글을 읽은 사람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배의 흔들림이 시작되자 선장은 선원을 모두 갑판 위로 모이도록 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 ① 발지킬이 있었다면 선원들의 움직임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겠군.
- ② 선원들의 움직임이 양력을 발생시켜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겠군.
- ③ 핀 안정기의 역할을 했던 선원들로 인해 배의 속도가 빨라졌겠군.
- ④ 선원들을 양쪽으로 동시에 고르게 분산시켰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었겠군.
- ⑤ 선원들이 U자형 관 안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겠군.

3. <보기>의 ㉠과 ㉡는 배의 앞쪽에서 바라본 핀 안정기를 그린 것이다. 배가 (가) 방향으로 기울 때 원 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핀 안정기의 움직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의 뒤쪽은 모두 위로 움직인다.
- ② ㉠과 ㉡의 뒤쪽은 모두 아래로 움직인다.
- ③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위로 움직인다.
- ④ ㉠의 뒤쪽은 위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인다.
- ⑤ ㉠의 뒤쪽은 위와 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의 뒤쪽은 움직이지 않는다.

4.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 ① 조절(調節)하여
- ② 조성(造成)하여
- ③ 조율(調律)하여
- ④ 조종(操縱)하여
- ⑤ 조치(措置)하여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가) 바이러스는 보통 세균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단백질과 핵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할 때는 숙주* 세포 내의 효소와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물질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는 등 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물을 이용하는 데만 그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생'이라는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은 필연적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까?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숙주가 되는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어 유전 물질을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간 유전 물질은 숙주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낸다. 바이러스는 이 효소들을 이용하여 유전 물질을 대량 복제하며, 복제된 유전 물질로부터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합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조립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완성된다. 이때 하나의 숙주 세포에서 복제되는 바이러스 수는 엄청나다.

(다) 이렇게 증식한 바이러스들은 숙주 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와 주변의 다른 숙주 세포들로 다시 침투한다. 물론 이때 기존의 숙주 세포는 죽는다. 만일 숙주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수의 숙주 세포가 파괴되어 수두, 유행성 눈병, 독감, 에이즈 등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게 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과 달리 치료약이 별로 없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려면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라) 그러나 최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물체의 유용한 DNA*를 유전자 운반체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든 후 대장균과 같은 숙주 세포에 삽입하여 유용한 유전자를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이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은 다음 자신의 유전 물질을 세균 세포 내로 들여보내 대량으로 증식한 뒤 결국 숙주를 파괴하고 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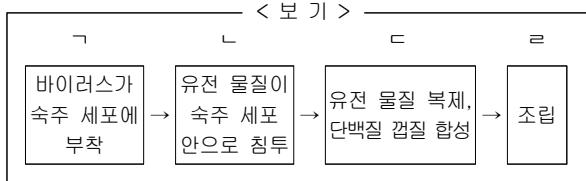
(마) ㉠ 현대 의학은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얻기 위해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다. 박테리오파지에 인슐린 합성에 필요한 DNA를 끼워 넣어 이를 대장균에 집어 넣어 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을 얻어 내 인슐린 주사를 만든다. 인슐린 주사는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는 정도이긴 하지만, 동물에게서 인슐린을 얻어내던 기존의 치료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주원인이고 숙주 세포를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존재로만 여겨지던 바이러스가 현대 의학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숙주 :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생명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생물.
* DNA :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 염색체의 중요 성분을 이루는 유전자 본체.

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바이러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라) :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 바이러스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로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에 활용되는 유전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②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할 때, ㉡의 과정까지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 ③ ㉡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
- ⑤ ㉢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7. ㉠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뇨병은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충분히 합성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 병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이상이 생긴 유전자 대신 인슐린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췌장의 베타 세포에 주입해 주어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 ① 바이러스를 이용한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아직까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군.
- ② 인슐린 합성의 양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활용한 당뇨병 치료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이군.
- ③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숙주 세포에 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군.
- ④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얻으려면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숙주 세균을 찾아야겠군.
- ⑤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DNA를 재조합하는 것이 급선무이군.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의 예술가들은 ‘자연’을 소재로 예술 작품을 창작해 왔다. 그들이 다룬 자연은 산, 강, 바다와 같은 풍경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개별적 형상, 인간의 신체, 자연의 질서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서양에서는 여러 예술 사조와 예술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 시대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자연을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 사조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있다. 두 사조의 관심은 ‘자연의 모방’에 있었지만, 자연을 모방하려는 목적과 방법, 또 모방하려는 자연의 종류가 달랐다. 고전주의의 핵심 이론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으로, ㉠ 고전주의자들이 주로 모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 안의 자연 즉, 인간의 신체였다. 그들은 자연의 모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적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든 자연은 아름다움과 결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분은 모방하고 결함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다.

예술에서 모방의 대상으로 우리 밖의 자연 즉, 풍경이 인간을 제치고 예술의 주요한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18세기에 시작된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을 원초적이고 거대한 힘을 지니고 완전무결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에, 인간은 왜소하고 미약한 존재로 인식했다. 심지어 낭만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자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자연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형상화했다.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서양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업 사회로 진입하는데, 이때 등장한 예술 사조가 ㉢ 모더니즘이다.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다. 고전주의자들과 낭만주의자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연을 모방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더 이상 자연을 모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그런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대상은 인간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자연을 예술의 소재로 삼았지만,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을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1차, 2차 세계 대전의 비극을 경험한 서양의 현대 예술가들은 자연의 인간화를 주장한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자연관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 생태 예술가들은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 자연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고, ㉤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생태 예술가들이 말하는 모방이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닌 가치와 정신 등을 닮으려는 실천적 모방이다. 인공의 산물이지만 마치 자연의 산물로 보일 정도로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8. 위 글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서양 예술의 미적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 ② 서양 예술을 이끌어 온 사조는 무엇일까?
- ③ 서양 예술가들은 왜 자연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 ④ 서양 예술가들의 자연관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 ⑤ 서양 예술에서 자연과 예술은 어떻게 대립되어 왔는가?

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결함을 수정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표현했구나.
- ② 인간에 비해 거대한 힘을 지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려 했구나.
- ③ 주관을 배제하고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 했구나.
- ④ 자연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려 했구나.
- ⑤ 자연을 소재로 삼아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인간의 위대함을 형상화하려 했구나.

1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자연에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 ② ㉠과 ㉢은 ㉣과 달리 자연이 예술 작품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 ③ ㉢은 ㉣과 달리 자연이 인간의 힘을 압도한다고 생각했다.
- ④ ㉢은 ㉠, ㉡와 달리 인공적인 것을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 ⑤ ㉢은 ㉣과 달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다.

11. 생대 예술가가 ㉠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성의 몸을 본떠 만들었다는 ‘도리스(Doric) 건축 양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기둥 반지름의 네 배로, 기둥의 높이는 열네 배로 설정했다.
- ②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에는 수 km에 걸쳐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옆으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조각상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 ③ 벨기에의 건축가 오르타는 건물의 곳곳에 식물 형태를 닮은 장식을 변주하여 사용하였다. 기둥은 꽃봉오리를, 실내 계단 난간은 넝쿨 줄기를 본떠 만들었다.
- ④ 발라 사보아는 땅을 건축에서 해방시키자며 건물을 공중에 띄우고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만 땅과 접하게 하여 비게 된 건물 밑의 땅을 정원으로 활용한 건물을 지었다.
- ⑤ 사막 지대인 미국 산타페의 ‘어도비 건축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와 진흙으로 만든 갈색 벽돌을 사용하여,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감각과 지각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감각을 지각으로 바꿔 놓는가? 감각은 그 자체로서는 단지 자극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의 시작 단계로 그것 자체로는 아직 인식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각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대상-예컨대 사과-의 돌레에 모였다고 하자. 코의 후각, 혀의 미각, 망막의 시각, 형태를 알아내는 손가락과 손의 촉각을 이 사물의 돌레에 모이게 하자. 그러면 이제 자극에 대한 의식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대상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지각이 생긴다. 감각이 인식으로 옮겨 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행은 자동적인가? 여러 가지 감각이 저절로 모여서 질서를 갖추고 지각이 되는가? 경험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감각은 피부와 눈과 귀와 혀로부터 뇌에 이르는 우수한 신경을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감각들은 그냥 놓아두면 끝까지 오합지졸이며 혼돈의 ‘다양’에 지나지 않는다. 전선의 우수한 지점으로부터 한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저절로 이해되어 명령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 오합지졸, 곧 감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을 취사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

칸트는 우선 모든 보고가 반드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의 목적에 알맞은 지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감각만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어도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목적에 시계 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계 소리가 전보다 커진 것도 아닌데 들리게 된다. 감각은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심부름꾼을 선택하고 부리는 사람, 즉 그들의 주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칸트는 두 가지 인식의 틀, 곧 ㉠공간과 시간을 통해 감각이라는 자료를 정리한다고 생각했다. 장군이 제출된 보고를 받

신 장소와 작성 시간에 따라 정리하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공간과 시간 속에 배열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여기의 이 대상, 저기의 저 대상, 현재 또는 과거에 귀속시킨다. 이 때 공간과 시간은 지각된 사물이 아니라 지각의 방식,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이미 정돈되었거나 앞으로 정돈될 모든 경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고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경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의 법칙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경험주의자들과 달리 우리가 경험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에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것, 즉 인식 주체가 있음을 밝혔다.

12. 위 글의 서술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주장을 강화한다.
- ②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화제의 이해를 돕는다.
-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견해의 타당성을 높인다.
-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 ⑤ 대상에 대한 접근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논점을 분명히 한다.

13. <보기>에 대해 칸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 획득된다. 태어났을 때의 인간의 정신은 백지(tabula rasa)이고, 여기에 감각적 경험이 다양한 방법으로 글씨를 써서 마침내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기고 기억으로부터 관념이 생긴다.

- ① 당신은 지각이 도리어 경험과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군요.
- ② 당신은 관념이 형성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군요.
- ③ 당신은 인간에게 경험이나 감각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군요.
- ④ 당신의 말과 달리 기억에서 관념이 생기고, 관념에서 기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 ⑤ 인간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감각을 정돈하는 능력이 서서히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의 내용에 좌우되지 않는다.
- ②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 ③ 지각된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한다.
- ④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 ⑤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0월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 보면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게들이 모여 있으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다면 모여 있는 가게가 단독으로 있는 가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일까?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하려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통해 편익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이란 탐색 행위를 통해 같은 상품을 싼 가격에 사거나, 같은 값에 질이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정량의 정보 탐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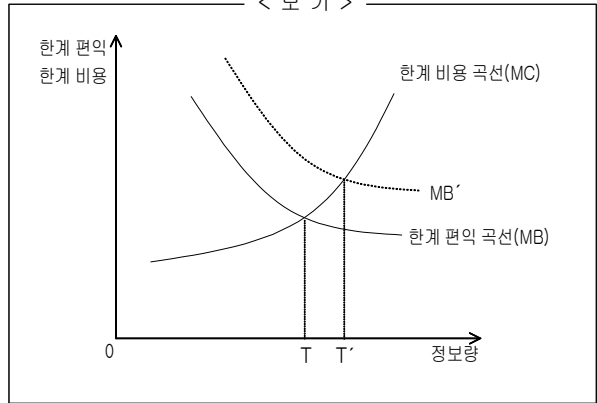
이렇게 정보 한 단위를 더 탐색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계 편익'이라고 하고, 이때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적절한 정보 탐색 행위의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정보 탐색 행위를 할 때 같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이 같은 정보 탐색 비용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어 시장과 백화점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다.

15.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현상과 관련된 사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사례로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과 대비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탐색 행위로 얻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보다 작다.
- ② T보다 적은 정보량을 지닌 소비자는 정보량이 T가 될 때까지 탐색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 ③ 한계 편익 곡선 MB가 MB'로 이동하면 동일한 정보량으로 더 많은 한계 편익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왼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 ⑤ 동일한 비용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한계 편익 곡선 MB는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1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보를 추가 탐색하면 정보 과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18. 밑줄 친 부분 중, ㉡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별 힘을 쓰지 않고서도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 ② 충동을 누른 힘이 서서히 고통으로 바뀌었다.
- ③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 ④ 힘만 가지고는 장풍을 뿜길 수 없다.
- ⑤ 선생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은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라며 거절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 화복(禍福)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정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다.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 집정(執政)하기 직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다.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됐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 개간(開墾)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국가는 경작지를 계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民富)를 국부(國富)로 연결시켰다.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鼎)*에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다. 성문법 도입은 귀족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으므로 당시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 위상(位相)을 높였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力治)의 가능성이 ㉤ 농후(濃厚)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했다.

* 정 : 발이 셋이고 귀가 둘 달린 술.

1.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
- ②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 ③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
- ④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영향
- ⑤ 자산이 단행한 개혁에 대한 계승

2. 위 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백성 :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군.
- ② 백성 : 법을 알기 위해 우리도 글을 배워야겠군.
- ③ 백성 :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겠군.
- ④ 귀족 : 백성도 토지를 소유하니 우리 입지가 약화되겠군.
- ⑤ 귀족 : 중간 계급의 정치력 강화에 맞서 법치 전통을 세워야겠군.

3.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
- ② ㉡ :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림.
- ③ ㉢ :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 ④ ㉣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 어떤 경향이나 기색 따위가 뚜렷함.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성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A. L. 웨버는 대표작 <캐츠>의 일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 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데 두었다.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 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뮤지컬을 '레뷰(revue)',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이는 때,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체계 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
- ② ㉡은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다.
- ③ ㉠과 ㉡이 적용되는 예술 장르는 서로 다르다.
- ④ ㉡은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 이론이다.
- ⑤ ㉡은 ㉠에 비해 더 진지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한다.

6. <캐츠>에 대한 감상 중 ㉤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어요.
- ② 감독이 고양이들의 등장 장면엔 채택한 연출 방식이 작품의 주제 구현을 오히려 방해해서 실망했어요.
- ③ 높은 앙고양이의 회한이 담긴 노래의 가사는 들을 때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켜요.
- ④ 기발한 조명과 의상이 사용된 것을 보고, 원작의 심오한 주제에 걸맞은 연출 방식이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 ⑤ 의인화된 고양이들의 삶과 내면이 노래들 속에 녹아들어 있어서,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와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종합 예술의 기원인 ㉥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반면 ㉦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

- ① ㉥는 즐거움의 제공을, ㉦는 교훈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군.
- ② ㉥는 자기 연관적이지만, ㉦는 외적 연관에 의해 지배되는군.
- ③ ㉥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는 미적 유희를 추구하는군.
- ④ ㉥와 ㉦는 모두 고전적 기준에 따라 높이 평가될 수 있군.
- ⑤ ㉥와 ㉦는 모두 각각의 시대에 걸맞은 '레뷰'라고 볼 수 있군.

8.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멸시(蔑視)한다면
- ② 천시(賤視)한다면
- ③ 등한시(等閑視)한다면
- ④ 문제시(問題視)한다면
- ⑤ 이단시(異端視)한다면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수능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 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포인터:	저장소	포인터:	저장소
0000:	산 이름	0000:	산 이름 다음 포인터
1000:	백두	1000:	백두 1008
1001:	설악	1002:	㉠ ①
1002:	지리	1004:	지리 1006
1003:	한라	1006:	한라 ----
1004:		1008:	설악 ㉡1004
⋮		⋮	

<그림 1> 배열 <그림 2> 연결 리스트

㉡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에 ‘소백’을 쓰고 ㉠과 ㉡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든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한다.
- ② 자료 접근 과정은 사용하는 자료 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 ③ ‘배열’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
- ④ ‘연결 리스트’는 저장되는 전체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할 때 편리하다.
- ⑤ ‘이중 연결 리스트’의 한 저장소에는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10. ㉠~㉢에 대해 <보기>의 실험을 한 후 얻은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동일 수의 자료를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차례로 실행하였다.

* 단, 충분히 많은 양의 자료로 충분한 횟수만큼 실험을 하되,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자료의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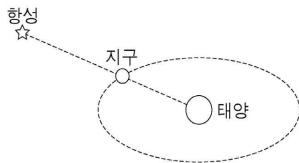
- ① ㉠은 ㉡에 비해 삭제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②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③ ㉡은 ㉠에 비해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 ④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았다.
- ⑤ ㉢은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수능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율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 율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율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율리우스는 연도가 4의 배수인 해를 ㉢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여,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두 역법 사이의 10일의 오차는 조금씩 나누어 몇 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 ②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법 개혁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다.
- ③ 율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다.
- ④ 율리우스는 천문 현상의 원인 구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 ⑤ 그레고리력이 선포된 시점에는 지동설이 지배적이었다.

12.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인 음력에서는 30일과 29일이 든 달을 번갈아 써서, 평년은 한 해가 열두 달로 354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와 많이 다르므로, 윤달을 추가하여 열세 달이 한 해가 되는 윤년을 대략 19년에 일곱 번씩 두게 된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법을 만들고 대략 15일 간격의 24절기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 놓음으로써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역법을 '태음태양력'이라고 한다.

- ① 부활절을 정할 때는 음력처럼 달의 모양을 고려했군.
- ② 동서양 모두 역법을 만들기 위해 천체의 운동을 고려했군.
- ③ 서양의 태양력에서도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군.
-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태음태양력의 열두 달과 일치하지 않는군.
-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율리우스력의 윤년보다 길겠군.

13. ㉠과 ㉡을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 서기 1700년은 모두 윤년이다.
- ② ㉠은 ㉡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 ③ ㉠을 쓰면 ㉡을 쓸 때보다 윤년이 더 자주 돌아온다.
-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 ⑤ ㉡은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지만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14. [A]를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활용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시에 있는 원형 전망대 식당은 그 식당의 중심을 축으로 조금씩 회전한다. ㉢ **철수**는 창밖의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식탁에서 일어나 전망대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창가를 따라 걸었다. 철수가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 **57초**가 걸렸는데,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 **60초**가 걸렸다.

- | | | | |
|---|----|-----|-----|
| | ㉢ | ㉣ | ㉤ |
| ① | 항성 | 항성년 | 회귀년 |
| ② | 항성 | 회귀년 | 항성년 |
| ③ | 지구 | 회귀년 | 회귀년 |
| ④ | 지구 | 항성년 | 회귀년 |
| ⑤ | 지구 | 회귀년 | 항성년 |

15. ㉠의 ‘으로’와 쓰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 안경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가볍다.
- ② 그 문제는 가능하면 토론으로 해결하자.
-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 ④ 사장은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
- ⑤ 지난겨울에는 독감으로 고생했다.

[16~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수능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 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 %이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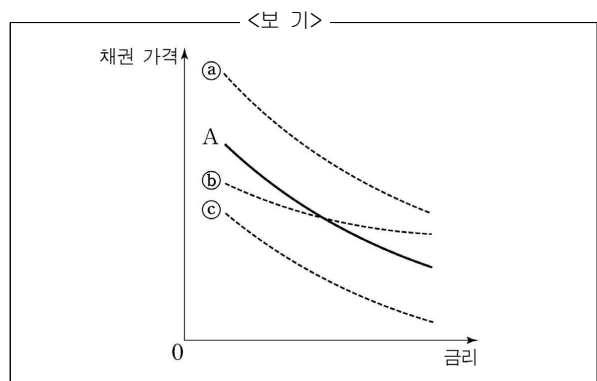
16. 위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 종류를 들고 있다.

17.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 ②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 ④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18.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 | | | |
|---|---|---|
| | ㉠ | ㉡ |
| ① | a | c |
| ② | b | a |
| ③ | b | c |
| ④ | c | a |
| ⑤ | c | b |